

귀 국 보 고 서

파견대학	빅토리아대학
파견기간	2019.8.3. ~ 2019.12.3.
프로그램	학기제

1. 출국 전 준비사항

가. 유학생 보험, 비자, 항공권

유학생보험은 학교측에서 알아서 들어줍니다. 하지만 방학기간 내에 다른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가야합니다. 해외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항공권은 몇 달 전에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출국 몇 달 전에 150만원에 왕복권을 구매하였는데 다른 친구 중에 늦게 구매하여 편도로 130만원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편도로 구매하시는 것 보다는 왕복권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여행을 어느 곳을 할지 몰라 일단 편도로 구매한 후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편도로 구매하면 더욱 비싸기도 하고 다른 곳을 여행할 때 짐을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위탁 수화물을 추가하여 여행을 다녀야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비쌉니다. 하지만 왕복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홈스테이 집에 짐을 잠시 맡기고 놀러가거나 돈을 주면 짐을 맡겨주는 가게가 몇 개 있습니다. 그런 곳에 맡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합니다. 그 대신 돌아올 날을 미리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.

비자는 미국 여행하실 거면 미리 다 발급하세요. 그리고 비자 발급 시 돈이 듭니다. 여행 가실 때에 비자랑 여권 사본, 입학허가서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.

나. 필요 물품(짐 꾸리기)

변환기 꼭 필요합니다. 다이소에서 2개에 500원인가 하는데 그걸 4개이상 사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생필품(샴푸, 린스, 스킨, 로션)은 별로 안 비싸서 가서 사셔도 됩니다. 생리대는 한국 것을 좋아하시면 사오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. 고데기는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. 저는 여기서 샀는데 너무 비싸서 버릴 때 너무 아까웠습니다. 옷은 8월에 가시는 거면 여름옷도 몇 벌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. 저는 캐나다는 추다는 생각에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여름 옷을 너무 안 가지고 와서 후회했습니다. 하지만 패딩은 필수로 가져오세요. 캐리어는 다른 지역을 여행하실 생각

이시면 기내용 캐리어도 꼭 가지고 오세요. 다들 큰 캐리어만 가져와서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 수화물을 추가해야 해서 너무 비싸서 결국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씩 샀습니다.

2. 파견국 및 파견 대학

가. 파견 국가의 언어, 문화, 물가

빅토리아는 은퇴 하시 분들이 많이 사시는 섬 이라서 다들 친절하고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합니다. 버스 탈 때 인사하고 버스 내릴 때 서로 인사할 정도로 친절합니다. 하지만 캐나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빅토리아만 해요. 다른 지역 놀러가시면 빅토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. 팁 문화는 빅토리아는 10%정도 줘도 되지만 다른 지역은 15% 주시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. 빅토리아도 사실 15%를 주는 것이 맞지만 유학생들은 대부분 10%정도 주더라구요. 물가는 제가 갔을 때 환율이 정말 높아서 910 일 때 가서 너무 비쌌습니다.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교 등록금 이랑 홈스테이비 다 하면 1000만원 정도고 그날 즐기면서 사시기에는 200만원 정도 충분합니다. 한 달에 50만원이면 충분해요. 사실 정말 아끼고 살면 30만원도 가능하지만 술도 마시고 외식도 하시려면 40 - 50 이면 됩니다.

나. 파견 대학

나-1. 대학 선택 이유

캐나다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. 원래는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했었는데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생을 선택했습니다.

나-2. 공항 - 학교

공항에서 학교는 처음 간 날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학교로 가는지만 알려줍니다. 가는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. 택시와 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.

나-3. 수강신청, 수업내용(프로그램 과정)

수강신청은 일렉티브만 두 개 선택하면 됩니다. 선택할 때 결정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. 수업은 학기제로 선택하실 경우 한 달 프로그램 하나와 세 달 프로그램 하나를 듣게 되실 텐데 한 달 프로그램은 매우 쉽고 그냥 노는 분위기입니다. 이때 많이 놀아 두시면 좋아요. 수업 외에 여러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들으세요. 이 때 아니면 듣기 힘들어요. 세 달 프로그램은 한 달 프로그램보다 좀 더 어렵고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. 숙제도 많고 조별과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다들 잘 안 나갑니다. 한 달 프로그램이랑 문화프로그램은 똑

같습니다.

나-4. 기숙사(홈스테이, 쉼어룸 등)

기숙사는 일 인실을 쓰게 되고 여러 기숙사가 있는데 노후 된 건물도 있고 신축도 있는데 이건 랜덤으로 선택됩니다. 제가 간 기숙사는 Park였는데 가장 신축이라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습니다. 화장실과 샤워실 남녀 공용입니다. 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은 한 명만 들어 갈 수 있게 되어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층별로 남녀 나눠 뒀서 괜찮습니다.

나-5. 교내·외 활동

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둘러 보느라 정작 빅토리아를 잘 둘러보지 못했는데 후회가 됩니다. 빅토리아에도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다 둘러보세요.

나-6. 꿀 팁(학교생활, 일상생활, 음식, 교통 등)

버스 비는 이미 등록금에서 지불되어서 학기 중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많이 돌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. 음식은 피쉬 앤 칩스, 햄버거, 버블티, 스시 맛있습니 다. 원카드라는 학생증에 돈이 들어있어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때 이 카드는 미스틱 마켓이라는 학생 식당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. 다른 곳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니 미스틱 마켓에서 밥 드세요. 그래서 밥을 학생식당에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전자렌지가 인기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. 하지만 아트리움에 전자렌지가 여러 대 있는데 그 곳에서 돌리시면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. 캐나다에서만 쓸 물건을 사고 싶으시다면 중고 가게가 정말 많은데 그런 곳에서 싸게 사시고 버리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. 가게들은 대부분 7시나 8시에 닫으니까 일찍 움직이셔야 합니다. 막차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시에 끝납니다. 그리고 일본사람들 엄청 많습니다. 하지만 다들 좋은 친구로 지냅니다.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

3. 여행 정보(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)

한 달 프로그램과 세 달 프로그램 사이에 2주 방학이 있습니다. 저는 방학에는 시애틀이랑 포트엔젤레스를 구경 했었는데 가실 때 페리 타고 가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. 하지만 페리가 인기가 많아서 금방 다 팔립니다. 얼른 사셔야 해요. 밴쿠버 가실 때도 페리 타세요! 그리고 방학 중에 몬트리올, 퀘백, 토론토, 벤프를 보고 왔는데 저는 캐나다는 2주 방학 때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. (하반기 파견 기준) 왜냐하면 학기가 다 끝나고 가시면 캐나다는 겨울에 너무 춥고, 눈 밖에 안보여서 여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학기가 끝난 후에는 미국 쪽을 돌아봤는데 그 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도 보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보다 따뜻해서 겨울에도 여행하기 좋습니다.

4. 후배들에게 한마디

조심이 다녀오시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!!

5. 사진자료(대학교 전경, Classmate, Activities 등)



기숙사 사진



Art & design 수업(교양수업)